



소박하되 간절한 소망,
코로나19 없이 자유롭고
활기찬 세상이 되길

- 김호영(기계공68)
1949년생



끈기, 지속, 영속성,
시종일관, 후보천리...
소의 해에 생각나는 말들

- 이명순(영문68)
1949년생



노란 양재기의 막걸리를
시작으로 쌓은 우정과
추억을 떠올린다

- 김진수(화학80)
1961년생



고려대학교는 오바마가
감탄한 'K교육'의
심장부임을 자부하며

- 이학영(영문80)
1961년생



내 위치에서 묵묵히
모교와 사회가 짓는 집에
벽돌 한 장 놓을 수 있길

- 김현섭(건축공92)
1973년생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고대'니까요.

- 최우진(법학92)
1973년생

QS아시아대학 국내 1위는 가뭇 중에 단비

멀게만 느껴졌던 2021년 신축년 새해 첫날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올해 나의 새해 소망은 소박하되 간절하다. 코로나19가 세상에서 사라져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다니고, 보고 싶은 사람 즐겁게 만나고, 하고 싶은 일들 신나게 하는 것인데 많은 이들의 바람 또한 나와 같을 것으로 생각된다. 올해는 상서로운 흰 소의 해란다. 소띠인 나에게는 올해가 일곱 번째 맞는 소띠 해이다. 그 중 다섯 번은 모교에 재학 또는 재직 시에 맞이했으니 고려대학교가 내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작년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연초의 계획과는 다른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한 해였다. 그 와중에도 고려대학교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져 QS 세계 대학 평가에서 국내 대학 중 으뜸의 평가 결과를 받은 것이 내게는 가뭇 중에 단비 같은 시원함이었다. 애써주신 학교 관계자와 고대인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새해 아침을 맞이하였으니 우리 모든 고대인은 작년의 힘들었던 경험을 밀거름 삼아 지금부터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건강하고 즐겁게 맞이하시고, 소와 같이 묵묵히 끈기 있고 슬기롭게 이 난관을 헤쳐 나가 보람된 신축년을 보내시길 바란다. 또한 우리 모두가 다시 이전처럼 자유롭게 세상을 즐길 수 있는 활기찬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

김호영(기계공68) 모교 명예교수

고대인답게, 고대인의 저력을 맘껏 표현하길

새해를 맞는다고 하여, 지난해와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고, 오직 흐르는 시간을 토막내어 구분 단락 지워 가는 해 또는 오는 해라 부르지 않는가? 지난해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새해 아침부터는 삶의 방향을 조금 바꾸거나 180도 반대방향으로 진전시켜 실행 결행해서, 개선된 방향으로 변화시켜, 스스로 더 만족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축년 2021년 소의 해! 소! 느릿하면

서도 우직스러워 보이면서도, “끈기, 지속, 영속성, 시종일관, 초지일관, 후보천리!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 한다”라는 글귀가 뇌리를 스칩니다.

등엔 짐을 잔뜩 엮고 걸으며, 때론 쟁기를 끌고 논밭갈이 하는 근면함. 늙은 소는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인과 교감을 주고 받으며 충과 성을 다하고, 소의 젓그리고 마지막 살점 하나까지도 인간에게 바치는 베풀. 그 숭고한 삶의 모습을 보며 소를 인간이 어찌 차마 존경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2021년 소의 해! 뚜벅뚜벅 의연하게 나날을 맞으며 1968년 봄, 젊은 날의 꿈과 계획을 노년이라하여 영향 받거나 흔들림 없이, 코비드19 대유행의 파고에 휩쓸리거나 위축되지 않고, 고대인답게, 건강하고 힘찬 고대인의 저력을 마음껏 표현하는 삶. 2021년 한 해 건강하고 열정적인 작품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명순(영문68)

40여 년 함께한 교우들과 앞으로도 함께하리라 다짐하며

해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지만, 2020년의 코로나19 위기는 뉴노멀 시대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만남, 애경사 참석, 친목 모임, 국내외 여행, 학회 활동 등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취소되거나 제한되었습니다. 국가 사회적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 공정한 사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나가는 길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달래고 지혜를 모은다면 이 또한 헤치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 아침에 춤추며 내리는 하얀 눈이 햇살에 반짝입니다. 신축생 교우들이 환갑인 2021년에 교우님들께 새해인사를 올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너무도 큰 선물입니다.

1980년 3월, 신입생 환영회에서 마셨던 노란 양재기의 막걸리를 시작으로 쌓았던 교우들과의 우정과 추억들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지난 40여 년간, 자유, 정의, 진리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80학번 화학과 교우들과 고대여성화학인 네트워크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기대

합니다. 김진수(화학80) 한국화학연구원

젊은 가슴과 숨은 생명 힘 넘쳐 뛰는 한해 되길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 건강과 기쁨, 보람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를 맞으며 떠올린 것 가운데 하나가 이중섭 화백의 유채화 <흰 소>입니다. 이중섭은 '소의 화가'로 불릴 만큼 소를 소재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지만, 1954년께 그린 <흰 소>는 각별한 작품으로 꼽힙니다. '백의(白衣)민족'으로 불리는 우리 민족의 기백을 우직하고 부지런한 한국의 토종 소에 투영한 그림입니다.

60년 전 흰 소의 해에 태어난 제게 올해는 특별한 감회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와 동갑내기인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시절 한국인들의 교육열을 칭송하면서 “내가 태어난 해에만 해도 내 아버지 조국인 케냐보다 못 살았던 한국이 단숨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은 교육의 힘”이라고 강조했던 게 생각납니다. 우리 모교 고려대학교가 오바마도 감탄케 한 'K교육'의 심장부로 역할해 왔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저는 모교에서 배운 노래 중에서도 보성전문학교 시절의 옛 교가를 가장 좋아합니다. “젊은 가슴/ 숨은 생명/ 힘 넘쳐 뛰노라/ 이 힘이여, 이 생명을/ 펼 곳이 어디냐/ 놀린 자를 쳐들기에/ 굵은 것 퍼기에/ 쓰리로다 부리리라 이 힘과 이 생명.”

지난 한해 코로나19라는 큰 재난을 만나 온갖 고생을 했지만, 올해는 흰 소의 정결하고도 힘찬 기운을 받아 우리 모두 '젊은 가슴'과 '숨은 생명'이 힘 넘쳐 뛰는 한해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입실렌티!!!

이학영(영문80) 한국경제 상임논설고문

뼌 내려오기만 바랄쏘냐, 흰 소의 기운 받자

고백컨대, 나는 올해가 소띠의 해라는 사실을 지난 세밑이 되어서야 알았다. 그만큼 바쁘게 살았다는 말이기도 하거니와 2020년이 온통 코로나로 점철되어 판데 눈 돌릴 틈 없었다는 말이었다. 고로 우리 교우들을 향한 덕담이자 새해 소망이라면, 모쪼록 이번 2021년에는 모두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유행병으로부터 안

전하시라 기원하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어느새 태어나서 12지가 네 번 돈 만큼의 인생을 살았다. 모교로 돌아와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니 선배 교수님들께는 팔팔한 청춘이요, 후배인 학생들에게는 근엄한 선생 아닌가. 예전 공자왈 맹자왈 할 때처럼 약관, 입지, 불혹을 따지자면 이제 지천명이 코앞인데, 아뽀싸! 과연 그런가, 내 어찌 감히... 다만 내 위치에서 묵묵히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며 모교와 사회가 짓는 집에 벽돌 한 장 놓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마침 올해의 소가 육십갑자로 신축(辛丑), 즉 '흰 소'란다. 흰 소라면 이중섭의 야수적 유희가 떠오르지 않나. 강렬한 붓터치로 거친 소의 분출하는 힘을 표현한 그 작품 말이다. 올 한해 우리 모두 흰 소의 역센 기운을 받아보자. 고대라고 어디 뼌 내려오기만 바랄쏘냐.

김현섭(건축공92) 모교 건축학과 교수

함께 모여 입실렌티를 외칠 날을 그려볼까요?

신축년(辛丑年), 하얀 소의 해가 밝았습니다. 십이지를 5번 돌면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 한 바퀴가 남았는데도, 참 기이한 경험을 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는 종전의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 그리 어색하지 않고, 저녁 술 약속 대신에 책을 뒤적이거나 논문을 끄적일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가 잘 활용하지는 못하지만,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더 많아지기도 하였고요. 혹시 이 상황이 극복되면, 지금의 소통 방법이나 여유가 그리워질 수도 있겠지요?

시간이 흘러 검은 소의 해가 다시 올 때쯤에 추억해보면, 분명 이번엔 얻은 경험과 지혜가 더 나은 생활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토대가 될 여러 교훈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끈기 있게 뚜벅뚜벅 오늘을 버텨나가야 하겠지만...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고대'니까요. 이제 함께 모여 입실렌티를 외칠 그날을 그려볼까요?

최우진(법학92) 모교 법전문 교수